

KIA 개막 이후 3연전 지켜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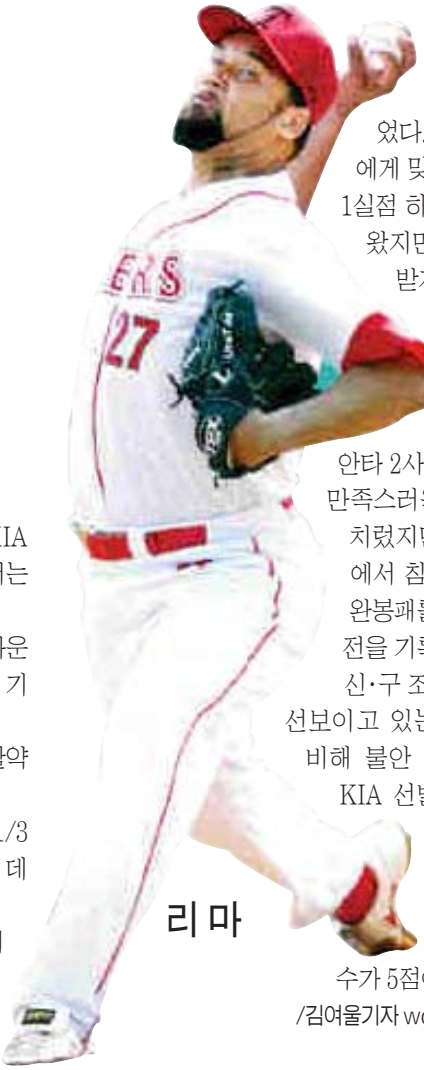
마운드 '합격점'... 방망이 '아직은'

'KIA의 원투펀치, 두산과 삼성의 높은 마운드를 넘어...'
2008시즌 프로야구 4번째 경기가 끝나면서 8개 팀의 마운드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예상처럼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는 막강, 2 선발을 내세워 '잔물야구'를 과시했다.
특급 용병 레스와 랜들은 두산의 원투펀치로 출격해 10과 3분의 2이닝 동안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2승을 챙겼다.
이들이 출전한 경기의 팀 평균 자책점은 0.50, 중간계투진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두산 홈 베이스를 밟은 상대 선수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마무리 정재훈은 2경기에서 2세이브를 챙겼다.
배영수-전병호를 원투펀치로 내세운 삼성 마운드의 위력도 매섭다. 삼성의 1, 2 선발은 3점만 내주며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다.
돌아온 에이스 배영수는 지난달 29일 개막전에서 KIA타이거즈의 김상훈에게 프로야구 2008시즌 1호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4회 손이 부어오르기 전까지 KIA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이날 최고 148km의 구속을 찍은 배영수는 3사사구 3탈삼진 3실점으로 무난한 복귀전을 치렀다.
2선발로 나선 전병호도 다양한 변화구로 KIA 타선에 1피안타만 내주며 승리 투수가 됐다. 볼렌진도 깔끔한 피칭을 선보이며 오승환이 2세이브를 챙겼다.
두 팀의 마무리가 쟁긴 4세이브 중 3세이브는

선발 리마-윤석민-서재응
호투 불구 팀 패배로 빛바래
중심 타선 결정타 한 방 없어
득점 찬스 번번히 놓쳐 3연패

KIA를 상대로 얻은 것이다. 상대 에이스 앞에 선 KIA의 타선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승 행거주기에 나서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삼성·두산과의 3차전까지 KIA타선은 호투한 마운드에 비해 결정타 없는 빈곤한 타격으로 팀승리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처럼 두산과 삼성 마운드에 이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팀은 KIA다.
리마와 윤석민이 나선 KIA의 원투펀치는 11과 1/3이닝 동안 4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 승리를 이끄는 데 실패했다.
리마는 지난달 29일 삼성과의 한국 개막전에서 첫 타자 박한이의 기습 번트에 페이스가 흔들리며 1회 2실점 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5와 3분의 1이닝동안 3실점 하며 시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윤석민은 박한이에게 맞은 솔로 홈런으로 1실점 하고 마운드에 내려왔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다.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선 서재응도 6이닝 동안 5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으로 만족스러운 한국 데뷔전을 치렀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침묵하는 타선 탓에 완봉패를 당하면서 첫 패전을 기록했다.
신·구 조화로 철벽 계투를 선보이고 있는 두산과 삼성에 비해 불안한 계투진도 KIA 선발 투수들의 발목을 잡았다. KIA 3선발이 내준 점수는 5점, 중간계투진이 내준 점수가 5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마

서재응

■ 에릭슨오픈 테니스

윌리엄스 자매 희비

언니 서리나 4강행

동생 비너스는 탈락

서리나 윌리엄스(28·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 랭킹 1위 퀴스틴 케닝(26·벨기에)을 손쉽게 물리쳤다.
세계 8위 윌리엄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크랜든파크에서 열린 테니스 마스터스시리즈 소니 에릭슨오픈 여자단식 8강전에서 케닝을 1시간20분만에 2-0(6-2 6-0)으로 물리쳐냈다.
이 대회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윌리엄스는 지난 해 프랑스오픈, 윌블던, US오픈 등 세 번의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예선에 져던 아픔을 되갚으며 상대 전적에서도 7승6패로 앞서게 됐다.
그러나 동생 비너스(27·미국)는 스페르나 쿠즈네초바(23·러시아)에 0-2(4-6 4-6)로 탈락했다.
서리나는 4강에서 랭킹 3위 쿠즈네초바를 상대로 '가문의 복수전'에 나선다. 1, 2번 시드가 모두 탈락한 여자단식과는 달리 남자단식에서는 로저 페더러(27·스위스)와 라파엘 나달(22·스페인)이 순항했다. 세계 1위 페더러는 호세 아카사소(45위·아르헨티나)를 2-0(7-6(5) 6-2)으로 물리쳤고 나달은 폴 앙리 마티유(16위·프랑스)를 역시 2-0(6-4 6-4)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약물 복용... 올림픽 욕상 금

美 게이틀린 CAS에 항소

금지 약물을 복용해 올해 초 미국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4년간 출전금지 처분을 받은 2004 아테네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 저스틴 게이틀린(26·미국)이 내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예정이다.
AP통신은 게이틀린이 다음달 29~30일 스위스 로잔 CAS 재판정에 출두,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2일 전했다.
2001년에 이어 2006년 두 번째로 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게이틀린은 테스트 스테본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1월2일 USADA 3인 징계위원회에서 2-1 판정으로 4년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게이틀린의 출전을 8년 간 묶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4년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내달 9일부터 함평다이내스티

올 여자골프대회 일정 확정

KB국민은행은 2일 2008년 총 5개의 아마 투어 및 여자프로골프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대회인 'KB국민은행 스타투어'를 전라, 경상, 충청, 서울·경기 4개 광역권에서 내차례 개최한다.
스타투어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함평 다이내스티 골프장에서 열리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2차 대회는 부산 해운대 골프장(6.20~22), 3차 대회는 충북 청원 실크리버 골프장(9.5~7), 4차 대회는 인천 스카이72 골프장(10.23~26)에서 차례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빅리거 외국인

백차승·추신수 등 한국선수는 2명 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일본 선수가 16명, 대만 선수도 3명이나 있지만 한국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추신수(클리블랜드)까지 포함해 단 2명이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일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팀 개막전 25인 로스터와 부상자 등 855명 선수들의 출신 국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선수'는 239명(28.0%)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2005년 29.2%, 작년에는 29.0%였다.

일본 16명·대만 3명

도미니카 88명 '최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도미니카 공화국(88명), 베네수엘라(52명), 푸에르토리코(29명) 등 카리브 지역 국가가 '빅3'를 이룬 가운데 일본이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등 기존 선수에 후쿠모토 고스케(시카고 컵스)까지 16명이 이름을 올리며 4위를 차지했다.
대만 출신은 왕치엔밍(뉴욕 양키스)과 귀홍즈, 후친룡(이상 LA) 등 3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백차승(시애틀)과 부상자 명단에 포함된 추신수까지 단 2명이 포함돼 대조를 이뤘다.
외국 출신 선수가 가장 많은 구단은 3년째 뉴욕 메츠(15명)였고, 시애틀이 14명, 시카고 컵스,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뉴욕 양키스가 11명씩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7천21명 중 3천356명(47.8%)이 외국인이었다. 이 비율은 2005년 45.1%, 작년 46.2%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 박찬호도 결국 LA다저스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김미현 나비스코 정상을 향해

4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CC(파72·6569야드)에서 개막되는 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프로암에 참가하는 김미현이 2일 아놀드파머 코스 4번홀에서 티구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문 KPGA 2연승 도전

내일 일본서 열리는 SBS 코리아투어 출전

주도할 태세다. 처음 일본에서 열리는 KPGA 정규투어에서 이같은 예측이 나오는 것은 배상문의 라이벌들의 초반 행보가 그리 순탄치 못하기 때문이다.
김경태는 스윙 교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 개막전에서 컷 탈락했고 작년 김경태와 함께 공동 다승왕을 차지했던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은 목디스크 증세 때문에 컨디션이 말이 아니다.
반면 배상문은 겨울에도 아시아골프투어

에 참가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했고 쇼트 게임 능력까지 끌어 올리면서 때론 샷을 보여주었고 있다.
지난 시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경태나 강경남 보다는 종교참인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과 김형태(31·테일러메이드)가 배상문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 함께 일본프로골프 투어의 말청 김종덕(47·나노소울)을 비롯해 장익제(35·하이트)도 우승 경쟁에 나선다.
또한 황재경(18), 허인회(21) 등 신인들도 정규대회 첫 출전의 기회를 잡아 선배들과 실력을 겨루게 됐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비...
문의: 1062351-0095